

## 부산시 영세지역 취업여성들의 영유아 양육실태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황 연 자·박 정 한

= Abstract =

### Child Rearing Practice of Working Mothers in a Poor Area of Pusan

Yeon Ja Hwang, Jung Han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o identify the problems in child rearing practice of employed mothers in urban poor area, all of 201 women with children under 6 years old living in Yun San 3 Dong, a poor area of Pusan city, were interviewed with a questionnaire by a trained interviewer from 10th April to 10th May 1989.

Among 201 women, 51 women were employed and 150 women were unemployed. Of the employed mothers 78.5% got their jobs because of economical need and 31.4% of them worker for 60-69 hours per week. Their average monthly income was 100,000-190,000 Won in 33.4% and 200,000-290,000 Won in 25.4%.

Breast milk was fed in 66.0% of the children of unemployed mothers while 49.0 of the children of the employed mothers were breast-fed ( $p < 0.05$ ). The most common reason for not breast feeding was shortage of breast milk among unemployed mothers (58.9%) but that of the employed mothers was their job(63.6%).

The basic immunization for children was completed in 70.5% of children of employed mothers as compared with 82.0% of the children of the unemployed mothers were completely immunized ( $p > 0.1$ ).

Accident experience rate of children among the employed mothers was 23.5% and that of the children of the unemployed mothers was 17.3%. The most common cause of accident in children of the unemployed mothers was carelessness while they were playing(34.6%) but in children of the employed mothers it was traffic accident(25.0%) and falling(25.0%). Most of the traffic accidents took place while the children's brother or sister of age under 14 years were baby sitting. When the accident took place 73.1% of the unemployed mothers were just at home, but 58.3% of the employed mothers were out of home for work.

In case of the employed mothers, 58.7% of their children were looked after by an adult mainly grandparents, 15.7% by the children's brothers and sisters under 14 years old, and 3.9% of the children were left alone. A majority of the unemployed mothers wanted to get a job if someone could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o facilitate the women employment and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children, good nurseries for working mothers need to be established at a cost they can afford. (keyword: child rearing, working mother, poor area, child health)

## 서 론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여성취업률이 점차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7년 34.2%(노동부, 1988) 이고 여성취업자중 안정 고용율(stable employment rate)은 1970년 48.7%에서 1982년 60.1%로 증가 하였다(경제기획원, 1983).

결혼후 취업을 할 경우 여성에게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고 하여 job stress model을 제시한 경우(WHO, 1983; Sorensen, 1987)도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원만한 이중역할(dual role) 수행에 가장 장애가 되는 점은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라고 하였고 영유아를 가진 여성들은 취학아동을 가진 여성들보다 더 힘든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이은숙, 1982; 이원철 등, 1987).

영유아의 건강은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하에 적절한 영양공급과 전염병예방 등으로 유지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 대신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잘 보느냐의 것과 영유아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침해받기 쉬운 허약한 상태 또는 나이에 있는지 하는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Ebrahim, 1982).

많은 취업여성들이 자신의 취업은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양옥승, 1978; 이은숙, 1982) 서울의 일부지역에서 조사된(양옥승, 1978) 바에 의하면 5세 미만 유아의 89.6%가 어머니가 가정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정서와 성격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본인의 성취욕에 의한 것이든 가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든 어머니가 취업을 할 경우 어린이의 양육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절한 탁아소가 많지 않아 어린이 위탁양육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취업 여성들의 영유아 양육 실태를 조사하여 어머니의 취업에 따르는 문제점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시 동래구 연산3동 영세민지역

9개 통에 거주하는 962가구중 6세 미만 어린이를 둔 272가구(28.3%)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거쳐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훈련된 조사원이 1989년 4월 10일에서 1989년 5월 10일까지 가정방문하여 어머니와 면접조사하였다. 6세미만 어린이가 2명이상 있는 가정에서는 가장 어린 어린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가정방문을 실시한 결과, 이사를 했거나, 몇차례의 방문으로도 만날 수 없었던 가구와 면담을 거부한 총 71가구를 제외한 201가구(74.0%)가 조사되었다. 그 중 비취업여성은 150명(74.6%)이었고 취업여성은 51명(25.4%)이었다.

자료분석은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으로 구분하여 그들 자녀들의 영양방법, 예방접종률, 사고경험률을 백분율로 비교하였다.

## 성 적

조사대상 어머니의 연령별 분포는 비취업여성의 51.3%, 취업여성의 51.0%가 30-34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5-29세로 비취업여성 39.4%, 취업여성 31.3%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비취업여성의 39.4%는 고등학교, 36.7%는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하였으며, 취업여성은 43.2%가 중학교 그리고 23.5%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로 취업여성들의 학력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약간 낮았다.

자녀의 수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비취업여성의 48.0%, 취업여성의 47.0%로 가장 많았고, 1명의 자녀는 비취업여성에서는 44.0%, 취업여성에서는 45.1%로 비슷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자녀의 연령은 2세이하가 비취업여성의 38.0%, 취업여성의 17.6%였고, 5세의 자녀는 비취업여성이 20.0%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51.0%로 취업여성들의 어린이 평균 나이가 비취업여성들의 어린이에 비해 더 많았다.

직계비속 외 동거인수는 비취업여성의 91.3%가 동거인이 없는 핵가족 형태인데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49.1%가 1명이상의 동거인이 있었다(표 1).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의 연령은 30-34세가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에서 각각 51.3%, 49.0%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비취업여성의 배우자의 50.7%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로서 취업여성 배우자의 학력이 더 낮았다. 배우자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by employment status

Characteristics		Unemployed		Employed	
		No.	%	No.	%
Age (yr)	20-24	4	2.7	1	2.0
	25-29	59	39.4	16	31.3
	30-34	77	51.3	26	51.0
	35≤	10	6.6	8	15.7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l	14	9.3	7	13.7
	Middle schl	55	36.7	22	43.2
	High schl	59	39.4	12	23.5
	College	5	3.3	2	3.9
	No response	17	11.3	8	15.7
No. of children	1	66	44.0	23	45.1
	2	72	48.0	24	47.0
	3≤	12	8.0	4	7.9
Age of index child (yr)	≤1	36	24.0	0	-
	2	21	14.0	9	17.6
	3	32	21.3	6	11.8
	4	31	20.7	10	19.6
	5	50	20.0	26	51.0
No. of family other than own child	0	137	91.3	26	50.9
	1	5	3.3	16	31.4
	2	4	2.7	6	11.8
	3≤	4	2.7	3	5.9
Total		150	100.0	51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by employment status

Characteristics		Unemployed		Employed	
		No.	%	No.	%
Age (yr)	25-29	13	8.7	5	9.8
	30-34	77	51.3	25	49.0
	35-39	43	28.7	12	23.5
	40≤	14	9.3	9	17.7
	Widow	3	2.0	0	-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l	5	3.3	4	7.8
	Middle schl	38	25.3	19	37.3
	High schl	76	50.7	17	33.3
	College	15	10.0	3	5.9
	No response	16	10.7	8	15.7
Job	Unemployed	8	5.3	7	13.7
	Regular job	98	65.4	28	54.9
	Irregular Job	44	29.3	14	27.5
	Oversea employment	0	-	2	3.9
Working hours per week	Unemployed	8	5.3	7	13.7
	40-49	19	12.7	0	-
	50-59	10	6.7	5	9.8
	60-69	28	18.7	14	27.5
	70-79	25	16.7	5	9.8
	80-89	5	3.3	1	2.0
	90≤	11	7.3	3	5.9
	Unknow	44	29.3	16	31.3
Monthly income (x,10,000)	0	8	5.3	7	13.7
	10-19	13	8.7	5	9.8
	20-29	44	29.3	15	29.4
	30-39	51	34.0	10	19.6
	40≤	31	20.7	11	21.6
	Unknown	3	2.0	3	5.9
Total		150	100.0	51	100.0

직업은 비취업여성의 65.4%가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54.9%로 낮았고, 직업이 없는 배우자는 비취업여성에서는 5.3%인데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13.7%로 더 높았다. 배우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60-69시간이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에서 각각 18.7%, 27.5%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수입은 비취업여성의 배우자의 34.0%가 30-39만원, 29.3%는 20-29만원인데 비해 취업여성의 배우자는 29.4%가 20-29만원, 19.6%는 30-39만원으로 취업여성 가정의 월수입이 더 낮았다(표 2).

**Table 3. Motivation for employment**

Motivation	No.	%
To promote professional skills	4	7.8
To make income	40	78.5
As a hobby	2	3.9
To make best use of leisure time	5	9.8
<b>Total</b>	<b>51</b>	<b>100.0</b>

**Table 4. Average working hours per day and working days per week**

		No.	%
Working hours per day	≤6	5	9.8
	7-9	19	37.3
	10≤	27	52.9
Working days per week	3	4	7.8
	4	0	-
	5	1	2.0
	6	37	72.5
	7	8	15.7
	Irregular	1	2.0
Working hours per week	≤40	8	15.7
	40-49	5	9.8
	50-59	11	21.5
	60-69	16	31.4
	70-79	8	15.7
	80-89	3	5.9
<b>Total</b>		<b>51</b>	<b>100.0</b>

취업여성의 취업동기는 78.5%가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한 후 생기는 여가시간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는 9.8%,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7.8%,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취미가 있어라고 한 경우가 3.9%였다(표 3).

취업여성의 평균노동시간은 1일 10시간이상이 52.9%였고 1주 6일간 근무가 72.5%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주당 근무시간이 60-69시간이 31.4%를 차지했고, 50-59시간이 21.5%였다(표 4).

주당 근무일수별 평균 월수입은 51명 가운데 17명(33.4%)이 주당 6-7일 근무에 10-19만원이었고, 13명(25.5%)은 주당 6-7일 근무에 10만원 미만이었다. 월수입이 30-39만원인 취업여성은 4.0%에 불과하였다(표 5).

취업여성의 취업시작시기는 39.2%가 자녀나이가 2세 이후부터 시작하였으며, 33.3%는 자녀 출생전부터 취업하고 있었고, 1세가 지난후 취업을 시작한 여성은 19.6%였다(표 6).

**Table 6. Age of the child when mothers started to work**

Age of child(months)	No.	%
Before child was born	17	33.3
1- 5	2	3.9
6-11	1	2.0
12-17	10	19.6
18-23	1	2.0
24≤	20	39.2
<b>Total</b>	<b>51</b>	<b>100.0</b>

6개월이내의 영아 영양방법은 비취업여성의 66.0%가 모유를 주었고, 11.3%는 혼합영양을 한데 비해, 취업여성은 49.0%만이 모유를 주었고 혼합영양은 7.9%로서 취업상태와 수유방법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p < 0.05$ )(표 7).

**Table 7. Feeding method for the index child for the first six months after birth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Feeding method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Breast feeding	99	66.0	25	49.0	124	61.7
Bottle feeding	34	22.7	22	43.1	56	27.9
Mixed feeding	17	11.3	4	7.9	21	10.4
<b>Total</b>	<b>150</b>	<b>100.0</b>	<b>51</b>	<b>100.0</b>	<b>201</b>	<b>100.0</b>

$\chi^2 = 7.947, df = 2, p < 0.05$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이유는 비취업여성의 58.9%가

젖이 부족해서, 14.7%가 우유가 좋다고 생각해서라고 하였고, 취업여성의 63.6%는 어머니의 직장때문이라고 하였으며, 31.8%는 젖이 부족해서 라고 하였다(표 8).

**Table 8.** Reasons for not breast feeding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Reasons for not breast feeding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To go to work	0	-	14	63.6	14	25.0
Shortage of breast milk	20	58.9	7	31.8	27	48.3
Poor sucking of infant	3	8.8	1	4.6	4	7.1
Poor health of mother	4	11.8	0	-	4	7.1
Formula is better than breast milk	5	14.7	0	-	5	8.9
Premature infant	1	2.9	0	-	1	1.8
Did not like to breast feed	1	2.9	0	-	1	1.8
Total	34	100.0	22	100.0	56	100.0

**Table 9.** Age of the index child when weaning was completed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Age of child when weaning was completed(mon-ths)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3-5	10	6.7	3	5.9	13	6.5
6-11	41	27.3	11	21.6	52	25.9
12-17	66	44.0	30	58.8	96	47.8
18-23	20	13.3	2	3.9	22	10.9
24≤	13	8.7	5	9.8	18	8.9
Total	150	100.0	51	100.0	201	100.0

기본예방접종(BCG, DPT, Polio, MMR)은 자녀연령에 맞추어 접종을 실시했다면 완료라 하였고, 하지 못하였다면 미완료라고 구분한 결과 비취업여성 자녀의 82.0%는 완료된데 비해 취업여성의 자녀는 70.5%가 완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아니었다(표 10).

**Table 10.** Complete childhood immunization (DPT, Polio, MMR) rate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Immunization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Complete	123	82.0	36	70.5	159	79.1
Incomplete	27	18.0	14	27.5	41	20.4
Unknown	0	-	1	2.0	1	0.5
Total	150	100.0	51	100.0	201	100.0

$\chi^2=2.3$ ,  $df=1$ ,  $p>0.1$

예방접종 미완료의 이유는 비취업여성에게서는 아이가

아파서, 시기를 놓쳐서가 각각 29.6%인데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57.1%로 가장 많았고, 28.7%는 시기를 놓쳐서 라고 하였다(표 11).

**Table 11.** Reasons for incomplete immunization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Reasons for incomplete immunization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Lack of time	6	22.3	8	57.1	14	34.1
Didn't know how to get immunization	2	7.4	1	7.1	3	7.3
Thought not necessary	3	11.2	0	-	3	7.3
Illness of infant	8	29.6	1	7.1	9	22.0
Missed the time	8	29.6	4	28.7	12	29.3
Total	27	100.0	14	100.0	41	100.0

조사대상 어린이가 출생후 부터 조사 시점까지 약국이나 병원에 갔을 정도로 다친적이 있는 경우는 비취업 여성이 17.3%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23.5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아니었다(표 12).

**Table 12.** Experience of child accident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Experience of child accident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Yes	26	17.3	12	23.5	38	18.9
No	124	82.7	39	76.5	163	81.1
Total	150	100.0	51	100.0	201	100.0

$\chi^2=0.953$ ,  $p>0.1$

사고당시 자녀연령은 비취업여성에서는 2세, 3세가 각각 23.1%로 가장 높았으나 취업여성은 4세가 41.6%, 5세가 25.0%였다(표 13).

**Table 13.** Age at child accident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Age of child(yr)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1	4	15.4	0	-	4	10.5
2	6	23.1	2	16.7	8	21.1
3	6	23.1	2	16.7	8	21.1
4	5	19.2	5	41.6	10	26.2
5	5	19.2	3	25.0	8	21.1
Total	26	100.0	12	100.0	38	100.0

사고의 종류는 비취업여성에서는 칼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다친 경우가 34.6%, 낙상 26.9%, 화상 23.1%

그리고 넘어진 것이 15.4%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교통사고, 낙상이 각각 25.0%, 칼이나 장난감에 다친것과 넘어진 것이 각각 16.7%, 화상과 미아가 각각 8.3%였다(표 14).

**Table 14.** Type of child accident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Type of accident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Traffic accident	0	-	3	25.0	3	8.0
Falling from height	7	26.9	3	25.0	10	26.3
Burn	6	23.1	1	8.3	7	18.4
Cut by knife/toys	9	34.6	2	16.7	11	28.9
Tumble down	4	15.4	2	16.7	6	15.9
Lost child	0	-	1	8.3	1	2.5
Total	26	100.0	12	100.0	38	100.0

**Table 15.** Maternal activity when child accident took place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Maternal activity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Stayed home	19	73.1	2	16.7	21	55.3
Out to work	0	-	7	58.3	7	18.4
Out of home	4	15.4	2	16.7	5	15.8
Keeping a store	3	11.5	0	-	3	8.0
Accident took place at kindergarten	0	-	1	8.3	1	2.5
Total	26	100.0	12	100.0	38	100.0

**Table 16.** Child care method of employed mother by age of child

Child care method	Age of child(yr)								Total	
	2		3		4		5			
	No.	(%)	No.	(%)	No.	(%)	No.	(%)	No.	(%)
<b>No baby sitter</b>										
Leave alone	0	-	0	-	2	( 3.9)	0	-	2	( 3.9)
Leave with relative/neighbor	0	-	1	( 2.0)	0	-	3	( 5.9)	4	( 7.9)
Kindergarten	0	-	0	-	1	( 2.0)	4	( 7.8)	5	( 9.8)
Take child to work	0	-	0	-	0	-	1	( 2.0)	1	( 2.0)
<b>Have baby sitter</b>										
Older brother/sister under 14 yrs old	1	( 2.0)	1	( 2.0)	1	( 2.0)	5	( 9.7)	8	15.7
Other family member	8	(15.7)	4	( 7.8)	6	(11.8)	12	(23.4)	30	(58.7)
Paid baby sitter	0	-	0	-	1	2.0	0	-	1	2.0
Total	9	(17.7)	6	(11.8)	11	(21.7)	25	(48.8)	51	(100.0)

자녀사고 발생시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일은 비취업 여성의 73.1%는 집에 있었거나, 15.4%는 외출중이었는데 비해 취업여성의 58.3%는 직장에 갔었고, 16.7%는 외출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취업여성들의 자녀관리 방법은 집안의 친척이나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58.7%로 가장 많았고, 14세이하의 형이나 언니가 돌보는 경우는 15.7%, 유아원이나 교육기관에 보낸다가 9.8%, 친척집이 이웃집에 보내는 경우가 7.9%,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두는 경우가 3.9%, 그리고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2.0%였다(표 16).

유아교육시설 이용경험은 비취업여성의 32.7%가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고 취업여성은 43.1%였다(표 17). 이용한 교육시설의 종류는 유아원이 비취업여성의 34.8%, 취업여성의 40.9%로 가장 많았고, 미술학원이 비취업여성의 24.5%, 취업여성 22.7%였다. 2개이상의 교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은 비취업여성에서는 10.2%였고, 취업여성에서는 13.6%였다(표 18).

**Table 17.** Utilization history of educational institute for children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Utilization history of educational institute for children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Yes	49	32.7	22	43.1	71	35.3
No	101	67.3	29	56.9	130	64.7
Total	150	100.0	51	100.0	201	100.0

**Table 18.** Type of educational institute for children ever utilized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Type of educational institute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Painting	12	24.5	5	22.7	17	23.9
Oratory	3	6.1	0	—	3	4.2
Piano	0	—	1	4.6	1	1.4
Abacus calculation	4	8.1	1	4.6	5	7.1
Gymnasium	8	16.3	3	13.6	11	15.5
Kindergarten	17	34.8	9	40.9	26	36.6
Two or more of above	5	10.2	3	13.6	8	11.3
Total	49	100.0	22	100.0	71	100.0

**Table 19.** Utilization history of and satisfaction with nursery and reasons for dis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of mother

	Unemployment		Employed		Total	
	No.	%	No.	%	No.	%
Utilization history of nursery						
No	14.5	96.7	46	90.2	191	95.0
Yes(present)	1	0.7	0	—	1	0.5
Yes(past)	4	2.6	5	9.8	9	4.5
Satisfaction with nursery						
Yes	1	20.0	1	20.0	2	20.0
No	4	80.0	4	80.0	8	80.0
Reasons for dissatisfaction						
Inconvenient schedule	1	25.0	0	—	1	12.5
Too expensive	2	50.0	0	—	2	25.0
Unreliable	0	—	2	50.0	2	25.0
Two or all of above	1	25.0	2	50.0	3	37.5

탁아소이용 경험률은 아주 낮았으며 비취업여성의 3.3%와 취업여성의 9.8%만이 과거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에서 각각 80.0%가 불만족스러웠다고 하였으며 불만족의 이유는 비취업여성의 50%는 비용이 많다는 것이었고, 취업여성은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경우가 50% 그리고 두가지 이상의 이유가 50%였다(표 19).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계획을 알아본 결과 48.0%는 아이를 맡길수만 있으면 일하겠다고 하였고, 22.7%는 일자리만 있으면 일하겠다고 하였다. 가사일이 좋아 집에 있겠다는 여성은 12.0%뿐으로 대다수의 여성이 취업을 원하고 있었다(표 20).

**Table 20.** Intention of unemployed mother to work

Intention to work	No.	%
Will stay home	18	12.0
Will work if baby sitter is available	72	48.0
Will work if job is available	34	22.7
Will work if husband permits	10	6.7
Helps husband's work at home	10	6.7
Can't work due to poor health	1	0.7
Don't know	5	3.2
Total	150	100.0

## 고 찰

본 조사지역의 취업여성들의 특성을 비취업여성들에 비해 연령이 비교적 많으며, 학력수준이 낮고, 자녀의 연령이 비교적 많고, 직계자녀 이외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학력이 비취업여성의 남편보다 낮았고, 남편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의 월 평균수입도 취업여성의 29.4%가 20-29만원으로 비취업여성의 34.0%가 30-39만원에 비해 더 낮았고, 1988년 전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평균소득 452,000(경제기획원, 1988)에 비해 훨씬 적었다. 따라서 취업여성들은 남편의 경제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업을 한 경우가 78.5%나 되어 1988년 전국 사회통계조사(경제기획원, 1988)에서 여성의 취업사유중 생계유지 및 가계보탬이 55.1%인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취업여성들의 자녀 나이가 비취업여성의 자녀보다 나이가 더 많고, 직계자녀의 동거인이 있는 비율이 높은것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였고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취업여성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이상 근무자가 52.9%로 대체로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1주에 7일을 근무하는 여성도 15.7%나 되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무일수별 평균 월수입은 33.4%가 6-7일 근무에 10-19만원 이었고, 25.5%는 1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였다.

취업여성의 취업시작 시기는 대상자녀가 출생하기 전 부터 취업을 해온 여성은 33.3%였고, 뉘을 지내고 나서 취업을 시작한 여성은 19.6%, 2뉘을 지내고 나서 취업을 시작한 여성은 39.2%로 나타나 자녀연령이 어머니 취업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후 6개월이내의 영양방법은 비취업여성의 66.0%가 모유를 주로 먹이는데 비해 취업여성들은 49.0%만이 모유를 먹여 모유수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취업여성들의 모유수유를 못한 이유도 63.6%가 취업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아 모성의 취업이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취업여성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직장내 또는 직장 가까이 탁아소를 설치하거나 근무중에 모유를 짜 모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의 기본예방접종은 비취업여성에서는 82.0%가 완료하였는데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70.5%로 다소 낮았다. 예방접종 미완료의 이유는 비취업여성에서는 아이가 아파서, 시기를 놓쳐서가 각각 29.6%인데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57.1%가 어머니 취업때문이라고 하였는데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이 52.9%나 되고 1주일에 6일 또는 7일 근무하는 사람이 88.2%나 되어 자녀의 예방접종을 제때에 맞추기 어렵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 취업여성 가운데는 맞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11.2%나 된 것은 그들의 낮은 학력과 관계될 것으로 추측된다.

서태원(1988)에 의하면 도시 5-19세 어린이의 사망원인으로 사고사가 3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관리중 사고의 예방이 중요한데, 조사지역 자녀 사고 경험률은 비취업여성의 17.3%에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23.5%로 더 높았다. 그러나 자녀사고 발생시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일은 비취업여성의 73.1%는 집에 있었는데 비해 취업여성의 58.3%는 직장에 근무중이었고 16.7%는 집에 있는 중에 일 어났다고 하여 취업여성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고의 종류가 비취업여성에서는 칼이나 장난감에 의한 외상이 34.6%로 가장 많은데 비해 취업여성에서 치명적 사고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와 낙상이 각각 3건으로 전체사고의 50%를 차지했고 3건의 교통사고중 2건과 1건의 미아는 14세 이하의 형이나 언니가 돌보는 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부재가 큰 사고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여성들이 직장에 나가는 동안 집안의 친척이나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유

아원이나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중 하나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 밀고 맡길 수가 없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를 혼자두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51명중 2명이 있어 어린이의 안전에 큰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취업여성 가운데 48.0%는 아이를 맡길 수만 있으면 일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보아 영세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큰 경제적 부담없이 맡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나 유아교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요 약

도시 영세지역 취업여성들의 자녀양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 연산3동 영세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가운데 6세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201명을 (비취업여성 150명, 취업여성 51명) 가정 방문하여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89년 4월 10일부터 1989년 5월 10일까지 어머니들과 직접 면접조사하였다.

취업여성들의 78.5%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업하고 있었으며 31.4%가 주당 60-69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평균 월 수입이 10-19만원인 여성이 33.4%, 20-29만원이 25.4%였다.

자녀들의 생후 6개월이내의 영양방법은 비취업여성의 66.0%가 모유를 준데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49.0%로 취업여부와 수유방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 < 0.05$ ).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비취업여성은 58.9%가 젖이 부족해서 인데 비해 취업여성의 63.6%가 직장때문이었다. 자녀연령에 맞추어 접종해야 할 기본예방접종은 비취업여성의 82.0%가 완료된데 비해 취업여성은 70.5%가 완료되었으나 접종 여부와 취업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아니었다.

자녀사고 경험률은 비취업여성이 17.3%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23.5%였으며, 사고의 종류는 비취업여성에서는 칼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다친 외상이 34.6%, 낙상이 26.9%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교통사고, 낙상이 각각 25.0%였는데 교통사고는 14세 이하의 형이나 언니가 돌보는 중에 일어난 것이 많았다. 자녀사고 발생시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일은 비취업여성의 73.1%가 집에 있었는데 비해 취업여성의 경우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동안 사고가 난



경우가 58.3%였다.

취업여성들의 자녀관리방법은 집안의 어른(친척이나 조부모)이 돌보는 경우가 58.7%로 가장 많았고 14세이하의 형이나 언니가 돌보는 경우가 15.7%였으며 자녀관리자 없이 혼자 두는 경우가 3.9%였다. 비취업여성중 48.0%가 아이를 맡길수만 있으면 취업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세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큰 경제적 부담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나 유아교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3, 쪽. 98-99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7, 쪽. 114-115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1988; 30(6): 94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1988; 30(11): 94-95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8, 쪽. 112  
김상순, 박점희, 서순림. 대구지역 일부 부녀자들의 육아지식에 관한 조사. 중앙의학 1980; 39(6): 403-409  
김소야자. 직업여성을 위한 정상아동의 건강간호. 대한간호 1979; 18(1): 16-20  
김정남. 도시 영세지역 주민의 모자보건실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5  
김향란. 도시주부의 역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앙의학 1981; 40(6): 387-390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8  
서태원. 도시지역 5-19세 연령군의 사망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988; 5(2): 224-232  
양옥승. 도시 취업여성의 유아기 자녀 관리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1978  
유득준. 산업사회와 여성의 사회진출. 월간간호 1983; 7(1): 43-36  
이원철, 이강숙. 여성근로자의 역사적 배경과 이중역할의 문제점. 산업보건 1987; 42: 15-27  
이은숙. 일도시 기혼 직장여성의 피로도 및 역할에 관한 조사. 중앙의학 1982; 42(2): 127-133  
조규상. 노동과 여성건강. 한국의 산업의학 1988; 27(1): 1-7  
차옥희.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의 영유아의 양육 및 보건에 관한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1973; 3(3): 111-117  
Ebrahim GJ. Child health in changing environments. Mac Millan Press LTD, 1982, pp. 83-97  
Sorensen G, Verbrugge LM. Women, work and health. Ann Rev Public Health 1987; 8: 235-251  
World Health Organization. Woman and occupational health risks. EURO Reports and Studies 76, Copenhagen, 1983